

빅히트, 미 라이브스트리밍 기업 키스위와 파트너십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기업 키스위 모바일(Kiswe Mobile)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실시간 공연을 선보인다.

빅히트는 9일 미국 라이브스트리밍 기업 키스위와 전날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를 극대화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더 즐겁고 폭넓은 공연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14일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실시간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The Live)’를 본격적인 첫 협업 프로젝트로 선보였다. 빅히트는 지난해 12월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팬 미팅에서도 키스위와 함께 멀티뷰 방식의 중계를 진행했다.

키스위는 벨연구소 대표 출신인 김종훈 박사와 웹 스웨덴, 지미 린이 2013년 공동 창업한 회사로, 미국 프로농구(NBA) 등 공연 및 스포츠 행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를 진행해 왔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시청할 수 있는 ‘멀티뷰 라이브 스트리밍’ 원천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멀티채널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글로벌 사업 및 서비스 확장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특히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키스위 창업자 김종훈 박사는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벤처 신화’를 이룬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이종국직 문제로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빅히트는 “이번 전략적 제휴는 양사 역량의 시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청산 대상

미국에서 ‘흑인 사망’ 항의 시위 확산으로 인종차별과 연관된 역사적 상징물들이 퇴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청산 대상이 됐다.



▲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

미 스트리밍서비스 HBO 맥스는 9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유 콘텐츠 목록에서 삭제했다. 1939년 개봉한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10개 부문을 휩쓴 명작으로 평가받지만,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백인 노예주를 영웅적으로 묘사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HBO 맥스 측은 성명을 통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당시 미국 사회에 흔했던 윤리적, 인종적 편견 일부가 묘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인종차별적 묘

사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틀린 것이며, 이에 대한 규탄과 설명 없이 해당 영화를 방영 목록에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HBO 맥스 측은 추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역사적 맥락에 관한 설명과 함께 콘텐츠 목록에 복귀시킬 것이지만, 영화에 별도의 편집을 가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HBO 맥스의 이런 조처는 영화 ‘노예 12년’의 각본을 작성한 영화감독 존 리들리가 전날 언론 기고문을 통해 HBO 맥스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삭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직후 나온 것이다. 리들리는 “이 영화는 인종차별 관행의 참상을 무시하며, 그러지 않을 땐 흑인에 관한 가장 고통스러운 선입견을 영구화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계상-이하늬 결별 열애 7년 만



배우 윤계상(42)과 이하늬(37)가 7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11일 “두 배우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두 배우를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난 후 가까워져 이듬해 교제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관계를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연예계 장수 커플로 사랑받았다.

이들의 결별이 알려지자 이하늬의 SNS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든 건 변하니까. 설명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나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런 오늘”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 곧장 윤계상과 결별설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별설을 부인했다. 또 이하늬는 “너무 예뻐하는 강아지 사진을 우연히 찾게 됐다. 5년 전인데 강아지도 어리도 나도 어리더라.”며 “얼굴은 검은 아이였는데 하얗게 변했다. 다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림기도 해서 공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